

남도의 서정 시인 '천국의 山門' 넘다

누이야
가을산 그리메에 빠진 눈썹 두어 날을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정정(淨淨)한 눈물 물로 놀러 죽이고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즈른 밤의 강이 일어서던 것을
그 강물 깊이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
물로 살아서 반짝여오던 것을
더러는 물 속에서 튀는 물고기같이
살아오던 것을
그리고 산다화 한 가지 꺾어 스스럼
없이
건네이던 것을...

<송수권 '산문(山門)에 기대어' 중에서>

한국 서정시를 대표하는 고흥 출신 송수권 시인이 4일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76세.

송수권 시인의 대표작 '산문에 기대어'는 탁월한 서정과 깊이, 주제의식을 갖춘 수작으로 평가된다. 시골스러운 외모 이면에 설움과 그리움으로 상징되는 남도의 정서를 지닌 시인은 지역문단을 넘어 한국문단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그의 작품에 드러워진 남도의 정서와 그만의 탄탄한 시적 논리는 여타의 시인과 차별되는 독특한 아우라를 발한다.

1940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고인은 순천사범학교와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75년 '문학사상'에 시 '산문에 기대어'로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순천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내 시의 출발은 상처다. 어린 시절 게모 밑에서 자랐던 터라 설움도 많이 받았고 배도 고프다. 그러다 문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스물네 살, 군대를 제대한 직후였다. 애뜻했던 동생이 그만 자살을 하고 만다.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한 시 '산문(山門)에 기대어'는 그렇게 나왔다. 1975년 '문학사상'에 백지에 써서 응모했는데 당선이었다. 시에서 '누이'를 애타게 찾고 있지만 사실은 남동생의 죽음을 슬퍼한 비가(悲歌)다."

기자는 지난해 여름 광주 일곡도서관에서 시창작 강의를 하는 그를 인터뷰했다. 그때마다 고흥군에서 고향뿐 아니라 남도의 문학적 위상을 높인 공로로 송수권 시문학상을 제정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던 차였다.

"해도 나 죽으면 하라고 했는데, 군에서 내세워 만든 게 없다고 하는 통에..."

시인은 "처음에는 송수권 시문학상 제정을 한사코 반대했다"며 "그러나 고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거라는 관계자의 말에 이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인은 "요즘 시는 가라앉고 없고 맛도 없

고흥 출신 송수권 시인 별세

1975년 '산문에 기대어'로 문학사상 신인상

'꿈꾸는 섬' 등 한국 서정시의 대표 시인 ... 문단에 큰 영향

순천대 교수 후학 길러내 ... 고흥군 '송수권 문학상' 제정



4일 별세한 고흥 출신 송수권 시인은 한국 서정시를 대표하는 문인으로 평가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일보와 인터뷰 당시 시인의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어 점차 독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시가 멀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 삶이 팍팍해지고 서정이라는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인터뷰 당시 송 시인은 평소와 달리 수척한 모습이었다. "십근경색으로 한번 쓰러져 병원에서 퇴원한지 얼마 안됐다"고 말하는 시인은 "아내가 절대 담배를 못 피

송수권 시인 대표작



우게 하지만 끊기가 정말 어려워 몰래 피우고 있다"고 겸연쩍어 했다.

생전의 시인은 시작 활동 외에도 남도의 문화와 관련된 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남도의 맛은 소리와 가락, 춤사위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남도 음식의 재미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며 "풍요로운 자연과 인심에서 연유하는 음식은 맛은 남도인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문화 창작 강의 외에도 음식이나 남도 사투리 강의를 하러 전국을 누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작년에는 영역본 시집 '혼자 먹는 밥 그리고 시편들'(Eating Alone and Other Poems-이하 '혼자 먹는 밥')이 미국에서 발간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영역본은 미주리침례대학교 한재남 교수가 수년에 걸쳐 진행한 작업의 결실로, 한국 시인의 시집이 미국에서 영역돼 발간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았다.

최근 1~2년 사이에 범대순 시인, 문병란 시인 등 남도를 대표하는 원로 시인들의 잇따른 타계 소식에 문인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고인과 가까운 문순태 소설가는 "송 시인은 호남을 대표하는 향토적 서정시인이자 남도의 정서와 짙긴 남성적 가락을 절묘하게 형상화한 문인"이라고 평하면서 "자칫 자기 탐닉에 매몰될 수도 있는 한(恨)을 민족적, 역사적 한으로 승화시켰다"고 애도했다.

고인은 지금까지 '꿈꾸는 섬', '아도', '새야 새야 파랑새야', '자다가도 그대 생각하면 웃는다', '시골길 또는 숲길' 등의 시집과 산문집 '다시 산문에 기대어', '사랑이 커다랗게 날개를 접고' 등을 펴냈다. 김영랑 문학상, 정지우 문학상, 소월 시문학상, 금호문화재단 예술상, 전라남도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유가족으로는 부인과 1남2녀가 있으며, 빈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 천지장례식장(062-527-1000)에 마련됐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당신의 슈퍼맨은 누구인가요?

뮤지컬 '달을 품은 슈퍼맨' 광주 공연

8일~5월29일 동산아트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그린 따뜻한 뮤지컬이 무대에 오른다.

지난 2013년 서울 대학로에서 초연돼 많은 사랑을 받았던 뮤지컬 '달을 품은 슈퍼맨'(사진)이 광주 관객을 만난다. 오는 8일부터 5월29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희히 선거일인 13일에는 총선 투표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무료관람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연 시작 한 시간 전부터 투표 인증샷을 보여주면 선착순 200명까지 무료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작품은 고단한 삶 속에서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이웃과 가족들이 함께 한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을 춤과 노래로 풀어냈다.

집안 형편 탓에 가수의 꿈을 접고,

아르바이트로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씨니. 어느 날 밴드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상금 500만원을 향해 도전을 시작하지만, 멤버는 험사리 구해지지 않는다. 때마침 씨니를 도와주기 위해 그림자처럼 나선 이웃들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도현, 의사의 실수로 정신연령이 7세 아이에 불과한 우현은 과연 씨니의 슈퍼맨이 될 수 있을까? 추경화씨가 극본과 연출을 맡았으며 뮤지컬 넘버는 허수연씨가 작곡했다. 티켓 가격 3만원.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 공개 모집

아리랑브랜드공연 작품도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1월 개최하는 제5회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을 공개 모집한다.

'2016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미디어아트, 미디어아트 체험, 축하행사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공감, 미디어아트'는 오는 5월18일 금남로 5-18민중광장에서 흥풍과 광주에서 동시에 상영되며 '미디어아트로 놀자'는 시민체험프로그램이다. 'Light and Human in Love'는 광주 유니스초 창의도시 지정 2주년을 기념하는 축하행사다.

예술감독은 축제의 종합운영 매뉴얼 작성, 흥공미디어아트페스티벌 참가 및 광주-흥공 간의 미디어아트 발전방향 논의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

접수는 11일~12일까지며 최종 합격자는 19일 발표한다. 문의 062-670-7462.

재단은 또 아리랑을 주제로 한 '2016아리랑브랜드공연'에 참가할 지역 공연 1개 작품을 모집한다.

아외공연이 가능한 연극·무용·다원예술·국악·기타 장르의 작품으로 시 광중에 주소를 갖고 있는 단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작품에는 최대 4500만원 까지 작품제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최종 선정된 1개 작품에게는 오는 6월 아셈문화재단의 문화공연에 맞춰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오는 15일까지 우편 혹은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 작품은 20일에 발표된다. 문의 062-670-7943. /김홍희기자 kimhy@

커피숍 상가 4층 건물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1층 (커피숍 입점)

2층~3층 (고급 룸 8개)
4층 (주택)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임대완료 정남향 코너자리

□ 월수익 → 50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만)

(※ 주인직매) 010-6670-9800 010-7384-7800

근린상가 오피스텔 매매

소액투자 가능, 3천만~2억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울수리 천원 전방 좋음 - 보증금 1,000만, 월세 60만 (용 5천)	□ 서구 쌍촌동 대우파크빌 (별과 원룸) -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1억 1천만	□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 마련)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역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광산구 월계동 참다지구 1층 상가 - (40평) 1층 상가, 미용실, 식당, 프랜차이즈 추천 - 보증금 800만, 월 80만 (용 4천)
□ 매가 8천 500만	□ 매가 1억 5천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역 -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 (50평) 2층 - 전방 좋음, 주변 골목상,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7천 500만	□ 매가 3천 5백만

010-6834-4800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특수물건 추천)

1. 북구 매곡동 (토 223평, 건 381평) (근린시설) ◆ 광주광역시교육청 인근 (아파트 상권, 유동 많음) ◆ 매곡동 호반 2차 아파트 정문 인근 ◆ 1층 (식당) 2층~3층 (학원) 4층 (사무실) ◆ 대출 50%가능 (실 투자 : 3억) 감정가 12억 - 최저가 12억	수익성 상가 (근린주택, 주택) ① 북구 중흥동 (토 72평, 건 96평) ◆ 중흥3동주민센터 부근, 2~3m 포장도로 접감정가 1억3천8백 - 최저가 1억3천8백
2. 광산구 운남동 (토 70평, 건 186평) (근린주택) ◆ 1층 상가 (마트) 2층 주택 ◆ 광주 운남동 우체국 부근 (코너자리) 감정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① 북구 연제동 (토 84평, 건 155평) ◆ 1층~2층 상가, 3층 주택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5억2천
3. 서구 쌍촌동 (토 90평, 건 364평) (숙박시설) ◆ 1층~5층 총층 37개, 운전역 3분거리 ◆ 달방 수의 약 800만 가능 ◆ 대출 약 70%가능 (실투자 2억) 감정가 12억 2천 - 최저가 5억5천	② 동구 충장로 (토 34 평, 건 44평) (1층 식당, 2층 주택) 차선도로 접, 우리은행 광주지점 부근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4. 서구 화정동 (토 800평, 건 2567평) (동 나이트) ◆ 광천터미널 뒤편 위치 ◆ 현 나이트 운영중 ◆ (나이트 직영, 타임빌 부근 투자 가치 추천) 감정가 130억 - 최저가 62억	(토지 추천) ① 광주 남구 주월동 (184평) (농지) ◆ 주월동 2차 현대아파트 부근 (차량접근 가능) ◆ 전원 주택지 추천, 식당, 마트 추천 감정가 2억5천8백 - 최저가 1억8천
5. 광주 남구 주월동 (184평) (농지) ◆ 주월동 2차 현대아파트 부근 (차량접근 가능) ◆ 전원 주택지 추천, 식당, 마트 추천 감정가 2억5천8백 - 최저가 1억8천	② 서구 세하동 (198평) ◆ 세하마을 주변 위치, 주위는 주택 및 전답 한해 ◆ 인근 차량 접근 가능, 3m 포장도로 접 ◆ 별정 지상권 성립 감정가 1억9천2백 - 최저가 1억9천2백

경매교육
경매 이체는 대동화사!!!
바로실선 교육되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 오후반)
주말반 (오전, 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요스님, 부동산 경매 관심요스님, 가족처럼 일하십시오 환영합니다.

010-6832-9700